

문예독본과 한글 문장의 정리와 보급

— 정열모의 『현대조선문예독본』(1929)*

강진호**

요약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현대조선문예독본』의 특징과 그 의의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조선문예독본』은 수방각에서 1929년 4월 2일에 초판 발행되어 세상에 나왔지만,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문예'독본을 표방한 관계로 문학 분야에서 관심을 가졌을 만도 한데 언급된 적이 없고, 단지 정열모의 국어학적 성과를 논하는 자리에서 간단히 언급되었을 뿐이다. 『현대조선문예독본』은 1920년대 후반 이후 즉출한 독본을 선도하고 '문예'를 표방한 최초의 독본으로 그 의미가 크다. 『현대조선문예독본』에서 편찬의 취지와 의도를 유추할 수 있는 곳은 서문에 해당하는 「범례」이다. 「범례」 1에서 “고등 정도 학교 생도의 자학자습으로 인한 독서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평이한 문자로 된 취미 기사를 만히 취하되, 재료는 될 수 있는 데까지 다방면에서 구하였노라.”고 밝히며, 고등 정도의 학생을 계몽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글을 수록한 것을 알려준다. 『현대조선문예독본』에 수록된 글을 원문과 비교해 보면, 우선 혼란스러운 철자를 바로잡아 놓았다. 당시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글은 철자법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그것을 일정한 원칙 아래 통일하였다. 또 작품의 묘사나 비유 등 문학적 표현을 생략하여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표(.)와 쉼표(,)와 물음표(?)와 줄표(-) 등의 구두점을 사용하여 문장의 논리성을 제고하였다. 그렇지만 한글맞춤법통일안(1933)과는 달리 ‘된시옷은 쓰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정열모는 문장에 ‘훈’을 담아야 문장이 완성된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내용의 문학작품을 수록한 것이다. 김유신, 정몽주, 서경덕, 길재, 이황, 박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성신여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F20200001)

** 성신여대 국문과

평년 등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담지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외국의 동화와 위인을 통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희생을 강조하였다. 조선총독부 간행의 '조선어독본'의 문장이 단어의 단순한 나열에 지나지 않기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예문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열모는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지 않고 철자를 바로잡는 등 문장을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함께 정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자면 『현대조선문예독본』은 문예를 빌려 한글을 정리하고 보급하려는 한글 운동의 실천적 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정열모, 현대조선문예독본, 문장의 형식과 내용, 문예독본, 조선어독본, 한글운동

목차

1. 정열모와 독본
2. 문예독본과 한글 철자법
3. 문장의 내용과 정신
4. 한글운동과 문예 독본

1. 정열모와 독본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현대조선문예독본』의 특징과 그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조선문예독본』¹⁾은 수방각에서 1929년 4월 2일에 초판 발행되어 세상에 나왔지만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문예'독본을 표방한 관계로 문학 분야에서 관심을 가졌을 만도 한데 언급된 적이 없고, 단지 정열모의 국어학적 성과를 논하는 자리에서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였다. 정열모가 해방 이후 월북한 관계로 남한에서 존재가 잊혀진 탓도 있지만, 독본이라 하면 『國語讀本』과 『朝鮮語讀本』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관계된다. 일본어가 상용화된 현실에서

1) 정열모, 『현대조선문예독본』, 수방각, 1929, 4.2.

공교육은 총독부 간행의 『국어독본』(일어)과 『조선어독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독본’하면 자연스럽게 이들 책을 떠올리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민간에서 간행된 독본으로는 『시문독본』(최남선), 『이십세기 청년독본』(강하형), 『문예독본』(이운재), 『조선문학독본』(이광수), 『문장강화』(이태준)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현대조선문예독본』은 거명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조선문예독본』은 1920년대 후반 이후 죽출한 이들 독본을 선도하고, 특히 ‘문예’를 표방한 최초의 독본이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대조선문예독본』은 서문에 해당하는 「범례(凡例)」가 제시되고, 이어서 목차와 본문, 판권지가 첨부된 180쪽 분량의 책이다. 책에서 편찬의 취지와 의도를 유추할 수 있는 곳은 권두의 「범례」이다. 첫 페이지에서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올라가는 모든 절근이와 밋 그네를 자녀로 거나리 느신 만천하 부형에게 드리는 맘의 선물”이라는 구절을 제시하여 독자의 범위와 의도를 밝혀 놓았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범례」 1에서 언급되듯이, “모든 고등 정도 학교 생도의 자학자습으로 인한 독서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곧 고등 정도의 학생을 계몽하기 위해서 책을 간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학년이 나아감을 짚아’ 각각 내용을 다르게 해서 “제1권에서는 동심을, 제2권에서는 자연 감상을, 제3권에서는 인문을, 제4, 5권에서는 문예와 사상을 중심으로 하였노라.”고 하였다.²⁾ 「범례」 2에서는 “본서의 철자법에는 가장 심신한 용의를 하였노라”고 해서 책을 간행한 의도가 한글의 정리와 관계되는 것을 시사하였다. “아즉 빈약한 우리 출판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비가 만코 쏘 시속이 조선어의 새철자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혐의가 잇스므로 불철저하나마 관용에 다소 정리를 가 하였노라.”³⁾는 것, 곧 철자법에 무엇보다 유의하였지만 출판계의 관행이

2) 하지만 그런 예고와는 달리 실제로 간행된 것은 ‘동심’을 소재로 한 1권뿐이고, 해방 후인 1946년 6월에 다음 권인 『한글문예독본 담권』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열모의 『한글문예독본 담권』(신한인쇄주식회사, 1946, 6.5.) 참조.

나 새철자법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흡한 수준에서나마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신문이나 잡지, 각급 학교 교과서에서 단어의 표기와 철자법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신문에서는 띄어쓰기와 표기법이 제각각이고, 동일한 글에서도 앞과 뒤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래서 한 신문에서는 “조선어독본 교과서가 그 문장에 잇서서나 또는 기타에 잇서 현대 조선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빨리 ‘언문철자법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조선어독본에 반영해야 한다’⁴⁾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정열모는 철자법에 ‘가장 심신한 용의’를 해서 『현대조선문예독본』을 간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열모는 왜 ‘문예’를 앞세워 독본을 편찬했을까? 그동안 ‘문예’를 표방한 독본으로는 이윤재의 『문예독본』(1931)을 최초의 것이라고 거론했지만, 이는 『현대조선문예독본』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견이다. 『현대조선문예독본』은 『문예독본』보다 2년이나 앞서 간행되었으며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저본(底本)과도 같은 책이다. 정열모는 이윤재와 마찬가지로 국어를 연구하고 한글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국어학자이고,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친 교사였다. 그런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각기 『현대조선문예독본』과 『문예독본』을 편찬하였다. 후술하겠지만 『현대조선문예독본』과 『문예독본』은 책의 구성이나 형식, 심지어 간행 의도가 거의 동일하다. 정열모가 ‘문예’를 앞세운 것은, 이윤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학(혹은 정신)을 빌려 문장의 ‘내용’을 채우고, 궁극적으로 한글 문장을 정리·보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여기서는 이런 사실을 전제로 『현대조선문예독본』의 체제와 간행 의도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것이 문장의 형식과 내용 구성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독본에 수록된 글을 원문과 비교하여 문장에 대

3) 「범례」, 『현대조선문예독본』, 수방각, 1929, 4.2.

4) 「언문철자법 개정과 교육행정의 신기원」, 《매일신보》, 1930, 2. 17.

한 정열모의 견해를 확인하고, 나아가 수록된 글의 내용적 특성을 고찰해서 정열모가 『현대조선문예독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기로 한다. 미리 말하자면 정열모는 ‘문장의 완성은 문학자의 몫’이라는 생각에서 문예물을 묶어서 독본을 간행했는데, 그것은 한글의 정리와 보급을 위한 한글 운동의 실천이었다.

2. 문예독본과 한글 철자법

정열모는 아동문학과 국어학자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다. 해방 후 북으로 넘어간 관계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동문학과 국어학 분야에 남긴 업적은 오늘날도 중요하게 평가된다. 일찍이 회인보통학교를 마치고 상경한 정열모는 주시경이 주도한 조선어강습원에 참여하면서 조선어학을 공부하고 문법학의 기초를 닦았다. 이후 와세다대학 국어한문과(일본어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면서 언어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문법체계를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춘』지에 시를 응모해서 발표한 적이 있고, 일간지에 시조와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의 「일요 가정」란에 열편이 넘는 동화를 게재하였고, 『신소년』에는 번안 「바이올린 천재」를 연재하였다. 1925년에는 『신소년』에 참여하여 권두 동요를 맡아 여러 작품을 게재하였으며, 같은 해에 신소년사에서 『동요작법』을 펴냈다. 그해 4월부터는 중등학교에서⁵⁾ 조선어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글의 보급과 통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여서 조선어연구회와 『한글』지의 동인으로 활동하며 그 다음 해까지 9

5) 정열모가 근무한 중등학교는 최규동이 수송동에 설립한 학교로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학교였다. 최규동은 수학교사로 출발하여 젊은 날 민족교육에 투신했던 인물로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학교를 설립·운영하였다. 하성환의 「친일 교육자 최규동과 ‘조선의 페스탈로치’ 이만규」(『교육비평』38, 2016.1.) 참조.

호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에서 추진한 각종 연구발표회와 강연회에 적극 참여하였고, 조선어사전편찬위원,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위원, 표준어 사정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⁶⁾ 이를테면, 교사로 있으면서 한글 연구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한편으로는 동화와 동요를 활발하게 창작·소개하였는데, 이런 활동들은 이후 한글 연구와 보급으로 모아진다.

당시 한글에 대한 정열모의 견해는 동인지 『한글』에 게재된 글⁷⁾과 1932년에 창간된 『한글』지에 발표된 2편의 글에서 확인되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정열모는 겉으로 드러난 언어의 형식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을 논리학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문법의 단위들을 분포와 그것들의 관계에 따라 정의하였다. 그는 문법의 단위로 ‘낱뜻, 감말, 월’을 설정했는데, 낱뜻이나 월의 정의는 미국의 구조주의의 단위원 ‘형태소, 어근, 접사, 구, 문장’을 정의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또 동사에 대한 명사의 다항 관계를 2항 관계로 환원하여 동사를 분류하고 문장 구조를 분석했다. 그리고, 월을 포함한 모든 덧감말 성분들의 관계를 ‘종속-통솔’의 관계로, 곧 동심 구조로 파악했다. 종속-통솔 관계에 있지 않은, 한 개의 덧감말을 형성하지 않는 성분들의 순서 관계는 ‘넓은 개념, 새 개념’이라는 정보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⁸⁾ 이런 문법체계는 조사와 어미를 별개의 문법 단위로 분리해서 봤던 주시경이나 조사만을 별도로 독립된 단위로 보았던 최현배의 문법체계와는 다른 정열모만의 독자적인 것이었다.⁹⁾

『현대조선문예독본』은 이런 문법관을 견지하던 시절에 간행된 책이다. 「범례」에서 “본서의 철자법에는 가장 심신한 용의를 하였노라”고 한 것은

6) 최기영, 「백수 정열모의 생애와 어문민족주의」, 『한국근현대사연구』25,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3.

7) 정열모, 「조선어 문법론」, 『한글』(동인지) 1-2, 1927, 12면.

8) 최규수의 「정열모 문법론의 특징」(『한글』281, 2008 가을, 한글학회)와 최기영의 「백수 정열모의 생애와 어문민족주의」(『한국근현대사연구』25,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3) 참조.

9)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2005, 350면.

국어학자로서의 이런 문법적 지식을 투영해서 책을 편찬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조선어의 새철자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혐의”가 있다고 말한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철자법’은, 한글맞춤법통일안이 공포된 것이 1933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자면, 공인된 안이 아니라 정열모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철자법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한글맞춤법통일안은 1933년에 공포되었다. 1930년 12월 14일 조선어학회 총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기로 결의하고 2년간 심의를 거듭하여 1932년 12월에 원안 작성을 마쳤다. 정열모는 김윤경, 이윤재 등과 함께 원안 작성에 참여하였고, 이후 원안을 심의하고 수정안을 만드는 데도 관여하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글맞춤법통일안은 1933년 10월 29일 세상에 공포되었다.¹⁰⁾ 이런 사실을 고려하자면 정열모가 말한 새철자법이란 공포된 한글맞춤법통일안이 아니라 사적으로 정리한 맞춤법이라 하겠는데, 그 내용은 1928년 11월 2일 <조선일보>에 발표된 「철자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여기서 정열모는 한글철자법의 표준은 합리성과 실용성을 핵심적 근거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받침은 초성 부용중성주의(初聲復用終聲主義)를 취한다. 둘째, 한자음은 철저한 표음식을 취한다. 셋째, 철어(綴語) 형식에는 분석법과 종합법의 중간인 절충법을 사용하여도 가하다. 넷째, 병서를 단행한다. 다섯째, 중간(中間)시옷은 모음으로 끼진말과 다른 말과 연락될 때에 한하여만 모음에 부처쓰고, 자음으로 끼진 말이 다른 말과 연락될 때는 자음의 발음 관계로 소리가 단단하게 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간시옷을 두지 않는다. 여섯째, 구절을 분명히 떼일 것이니 실질 단어를 표준 잡어 토(吐)를 무친 한덩이를 한

10) 1933년에 공포된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총론 3항, 각론 7장 63항, 부록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은 통일안의 기본적인 강령을 밝힌 것으로 첫째, 표준말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고, 둘째,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하며, 셋째,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되 토는 그 옷말에 붙여 쓴다 하였다.

단어로 엄밀한 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¹¹⁾ 이러한 규정은 한글맞춤법통일안(1933)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그것이 공포되기 전에 사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여러 가지로 불비한 것이 많고 또 시속에서 새철자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불철저하나마 관용에 다소 정리를 가하였노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조선문예독본』에 수록된 글을 원문과 비교해 보면, 철자(綴字)에 대한 정열모의 견해를 한층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발표 원문과 수록된 글을 대비해 보면, 우선 혼란스러운 철자를 바로잡은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글은 철자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주요한의 시집 『아름다운 새벽』의 원문과 『현대조선문예독본』 수록문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①은 『아름다운 새벽』에 수록된 원문이고, ②는 『현대조선문예독본』에 수록된 글이다. 동일한 시를 옮겨 놓았지만, 철자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① 빗소리 (『아름다운 새벽』 원문)	② 빗소리 (『현대조선문예독본』 수록본)
비가 옵니다. 밤은 고요히 짓을 버리고 비는 쓸우에 속색입니다 물내 짓거리는 병아리 가치.	비가 옵니다. 밤은 고요히 짓을 버리고 비는 쓸우에 속새깁니다 — 물래 짓거리는 병아리 가치.

11) “첫째 改正의 目標을 어대다 둘 것인가?가 問題일 것이다 이에 對한 議論은 하나들이 아니겠 지마는 가장 核心的인 根據는 朝鮮語의 本質로 보아 合理的인 것과 實用的인 것이니 이 主張을 가지고 朝鮮語 綴字를 議論한다면 거기 必然한 標準이 생기게 될 것은 當然한 歸結이다 그래 우리는 다음 가든 立論을 하게 된다 첫째 바침에 잇서서는 初聲復用終聲主義를 取하여 라 이것은 決코 訓民正音의 先例를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現代의 朝鮮語 性質로 보아 가장 合理的인 까닭이다 萬一 이 主義를 버리고 所謂 時俗體를 따른다는 것은 不完全한 文學 所有者가 音韻 다른 外國語를 적는 것처럼 겨우 仿似한 綴音을 할 따름이오 完全한 言語의 性質을 들어내지 못하는 셈인즉 뒤집어 생각한다면 完全한 우리 文字를 不具가 되게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하략)” (정열모, 「철자법 개정에 대한 의견」, <조선일보>, 1928.11.2. 인용의 띄어쓰기는 필자가 함.)

<p>으지러진 달이 실낱 갖고 별에서도 봄이 흐를듯이 짜뜻한 바람이 불더니 오늘은 이 어둔밤을 비가 옵니다.</p> <p>비가 옵니다. 다정한 손님가치 비가 옵니다. 창을 열고 마즈려 하여도 보이지 안케 속색이며 비가 옵니다.</p> <p>비가 옵니다. 쓸우에 창밧게 짐웅에 남 모를 깃분 소식을 나의 가슴에 전하는 비가 옵니다.</p>	<p>으지러진 달이 실낱 갖고 별에서도 봄이 흐를드시 짜뜻한 바람이 불더니 오늘은 이 어두운 밤을 비가 옵니다.</p> <p>비가 옵니다. 多情한 손님처럼 비가 옵니다. 窓을 열고 마즈려 하여도 보이지 안케 속새기며 비가 옵니다.</p> <p>비가 옵니다. 쓸우에 窓박게 짐웅에, 남 모를 깃분 消息을 나의 가슴에 傳하는 비가 옵니다.</p>
--	---

이런 표기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정열모 문법론의 근간인, ‘말의 몸’을 잡아 써야 한다는 원칙이다. 곧, ‘뜻 있는 낱말을 세워쓰자’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특히 동사와 형용사에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속색입니다’를 ‘속새깁니다’로, ‘어둔’을 ‘어두운’으로, ‘속색이며’를 ‘속새기며’로, ‘깃분’을 ‘깃븐’으로 고친 것은 그런 원칙을 적용한 때문이다. 일찍이 정열모는 “동사 형용사의 몸을 잡는 데는 ‘니’ ‘으니’ ‘고’의 세 가지 토를 달아 보면 그 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가령 ‘흐르니’란 것과 ‘홀으니’란 것에 어느 편이 바른지를 알 수 없지만, ‘고’란 토를 달아 ‘흐르고’와 ‘홀고’를 살펴보면 ‘流’의 뜻을 가진 몸이 어느 것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먹으니’와 ‘머그니’로 쓰면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지만 ‘고’를 달아서 ‘먹고’와 ‘머그고’라 하여 보면 ‘食’의 뜻을 가진 몸이 ‘먹’인 것을 알 수 있다¹²⁾고 했다. 여기에 비추어 ‘어둔’을 ‘어두운’으로, ‘속색이며’를 ‘속새기며’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12) 정열모, 「우리글을 옳게 적자는 주장을 가지고, 〈동아일보〉, 1927, 7.6.

<p>③ 난파선(1922)¹³⁾</p> <p>—</p> <p>발서 여러해전 일이었습니다.</p> <p>쌀쌀한바람부는 첫달 어느날아침에 영국「리썸폴」이라는 항구에서 큰기선 한척이 먼 길을써나 출발하였습니다 그 기선에는 수십명의 사공들과 손님 이백 명이타는듯 선장과 모든일꾼은 거의모다 영국사람이고 손님중에는 「이태리」 나라사람이 몇사람잇었습니다. 배는 지금「마루다」라는 섬을향하고 먼길을써나 는듯 그날턴기가괴상하여 한올모양이 무에오실듯오실듯 하였습니니다.</p> <p>기선한편곁쪽에잇는 삼등객중에 나이 열두살된 이태리소년이한사람이잇습니다 나이로보아서는 몸과키가 좀작은 편이였으나 그러나편쪽편하고 영리하고 어엿부게생긴 귀여운소년이였습니다 압 해잇는 큰돛대엿해 다만홀로 바-스줄감 어논우에 걸터안져서 모소리가 다해여 진한-가방에 한손을걸치고잇었습니다.</p> <p>머리털은 어깨에까지나려오고 다낮은웃 웃을어깨에걸고보기에도 구차한집 아해가튼그소년이 감안히혼자안져서 다 른손님들과 빅일꾼과 다른조그만배의지 나가는것들을 물그림이보고안졌는얼골 은 무슨근심과걱정이만히잇는것가티보 여서 요새 집안에무슨불행한일을당한것 같했습니다.</p> <p>①참으로 이소년은가련한신세였습니다 소년에게는 부모랑친이모다 도라가시고 아니게했습니다 어머니는 발-서예전에 도라가시어아니게시고 다만혼자걸너주 신아버님은 「리썸폴」에서 어느곳 직공</p>	<p>④ 난파선(『현대조선문예독본』, 1929)¹⁴⁾</p> <p>벌서 여러해前 일이었습니다.</p> <p>【쌀쌀한 바람 부는 첫달 어느날 아침에 英國 리썸폴 리이라는 港口에서 큰 汽船 한隻이 出帆하였다. 그 汽船에는 六十名의 船員까지 도틀어 二百名이 타 섰다. 船長과 船員의 大部分과는 英國 사람이었고 손님中에는 伊太利 사람도 몇사람 잇었다. 배는 지금 마루다 이라는 섬을 向하여 썬난 것이었는데 그날 이사 말고 日氣가 꽤 怪常하였었다.】</p> <p>三等客中에 열두살 된 伊太利少年이 잇 섰다. 나이 보아서는 體身이 좀 작은 편 이었으나 꽤 튼튼하고 「시시리아」판으 로 생긴 伶俐하고 어엿브고 귀인성 잇 는 少年이였었다. 아페 잇는 큰 돛대여 페 서러 호흔 동아바우에 다만 홀로 걸 터안져서, 모소리가 다 해여진 흰 가죽 부대에 한손을 걸치고 잇었다.</p> <p>가마잡잡한 얼굴에 시킴어코 굵글굵글 한 머리털이 어깨에까지 나려드렸다. 추레한 의복에 다 떨어진 外套를 걸치고 革帶에는 날근 가죽가방을 차고 잇 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갖가히 잇는 乘客들이며 다른 조그만 배들이며 부살나 케 지나다니는 水夫들이며 騷亂한 바다 이머를 물그림이 둘러 보고 안졌다. 요 새 집안에 무슨 不幸한 일이나 잇는 것 아닌가시피 얼굴은 애스러워도 表情은 어른 가터었다.</p> <p>出帆한 後, 얼마 안가서 伊太利사람인 水夫 하나가 조그만 處子의 손복을 끌 고 「시시리아」少年의 아프로 오더니</p>
---	--

<p><u>으로다니겠는데 슈일전에 불행하게 이</u> <u>쇼년하나를두고 마자도라가셨습니다 그</u> <u>래서 부모도형태도업는 이가련한쇼년을</u> <u>그곳에잇는 이태리령사가 주선을하여서</u> <u>쇼년의고향인 「파텔모」에 먼-친척되는</u> <u>아지머님께로보내주게 된것이였습니다</u> <u>객지에서 부친을마져일코 어의업는고아</u> <u>가되어 먼-고향의 친하지도못한 아지머</u> <u>님께길니우려가는 어린쇼년의가슴이 열</u> <u>마나 애닦고 슬헛겠습니가. 험한한울</u> <u>사나운물결을박차면서 그선은 작고다라</u> <u>납니다</u> 출범한지얼마안되어서 머리털 흰 이태 리사람 늙은수부(水夫)가 조그만쇼년한 사람의손목을잡고 이쪽쇼년의압흐로오 더니 쇼년을보고 「마리오야 조흔길사동무가생겨서 인제 심심치안캬다」하고는 「너 이 마리오하고 여긔서놀고잇거라.」 쇼년에게도 일느고는받분듯이 도라갓습 니다. <u>㉠쇼녀는 나이가 쇼년과어상만하야보이</u> <u>는 여엽분계집에엿습니다 쇼년의안진엽</u> <u>헛햇-스줄우에안져서 둘이서로 물그림-</u> <u>이보다가</u> 「어대로가니?」하고 쇼년이먼저물어보았 습니다. 「마루다로가서 거긔서쫘「나포리」로간단 다.」 이러케쇼녀는대답하고 쫘니어서「아버지 와 어머니한테로간단다 지금 어머니아 버지가 고대고대하고셔시오!」 쇼년은 그말을 듯어니 고개를숙이고 아 모말도아니하엿습니다 (1-4쪽)</p>	<p>「마리오야 여기 조흔 길동무가 생겼다」 하고 가 버렸다. 處子는 少年여페 거러 안졌다. 그애들은 서로 물그림미 쳐다보았다. 「어대로 가니?」 하고 少年이 먼저 물었 다. 「마루다섬으로 가서 거기서 쫘 네-폴스 로 간다. 아버지 어머니한테로 가는 길 이다. 아주 펍 기두르고 계시단다. 그런 데 내 이름은 「규리에다, 하기아니이라 고 한다.」 少年 마리오는 고개를 수기고 아모말도 업섯다. (31-33쪽)</p>
--	---

『현대조선문예독본』 수록본에서는 또한 띄어쓰기가 이루어지고 구두점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원문 ③에서도 일부 띄어쓰기가 이루어져 있으나 어떤 원칙이나 일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사실 한글은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표의문자인 한자와는 달리 단어를 붙여 쓰면 읽는 사람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렵고,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야 한다. 단어는 하나의 독립된 개념을 지니기 때문에 단어를 한 덩어리로 표기해야 그 개념이 쉽게 파악되는 까닭이다. 하지만, ③에서는 그런 의식이 발견되지 않는다. 실제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이 공포되기 이전에는 띄어쓰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④에서는 정열모가 앞에서 언급한 ‘구절을 분명히 떼일 것’이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을 볼 수 있다. ②의 시에서는 띄어쓰기가 오늘날과 거의 같고, ④의 산문에서도 단어(구절)를 띄어 써서 오늘날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 속의 구절처럼, 밑줄 그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띄어쓰기와 거의 동일하다.

한편 원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과 ㉡이 생략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열모가 서사의 디테일보다는 줄거리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정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과정에서 비유적 표현들은 삭제된다. “그날턴기가 괴상하야 한울모양이 무에오실듯오실듯 하엿습니다”는 하늘이 눈이나 비가 올 듯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인데, 정열모는 그것을 “일기가 퍽 괴상하엿섯다.”로 간결하게 줄였다. 비유는 사물을 통해서 정서를 형상화하거나 추상적 의미를 구체화함으로써 의미와 정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간명한 문장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의미를 모호하고 어렵게 만드는 까닭에 과감히 삭제한 것이다. 이탤릭체로 표기한 부분에서도 만연체의 문장이 몇 개의 단문으로 고쳐져 간명하게 정리된 것을 볼 수 있다.

13) 방정환, 「난파선」, 『사랑의 선물』, 박문서관, 1922년판.

14) 정열모 편, 「난파선」, 『현대조선문예독본』, 1929.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구두점으로 마침표(.)와 쉼표(,)와 물음표(?)와 줄표(-)를 사용한 점이다. 구두점은 문장을 논리적으로 밝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표기상의 부호를 말하는데, 곧 글에서 뜻이 끊어지는 곳을 구(句)라 하고, 구 가운데서 읽기 편하게 끊는 곳을 두(讀)라 하며, 이 둘을 합쳐서 ‘구두’라 한다.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는 문장에 쓰이는 중요한 부호라 하여 17개를 규정하였지만, ④에서는 4개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글맞춤법통일안의 ‘된시옷은 쓰지 아니함’이라는 규정과는 달리 정열모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리썸풀, 썸낫는디’ 등이 ‘리썸푸르, 썸낫’처럼 된시옷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는 ‘경음은 서, 썸처럼 된시옷을 썸’이라는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과 개정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1921)를¹⁵⁾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하자면, 정열모가 『현대조선문예독본』을 편찬하면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철자법의 혼란을 바로잡고, 바른 문장의 전범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문학작품을 수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묘사나 비유 등 문학적 측면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작품의 내용이 중요했고, 반침과 띄어쓰기와 철자법 등 표기의 기준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그런 의도가 책 전반에서 목격된다는 점에서 『현대조선문예독본』은 한글의 정리와 보급을 목적으로 간행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문장의 내용과 정신

정열모가 『현대조선문예독본』을 편(編)한 데는 한편으로 문장의 ‘내용’

15)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과 개정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1921)에 대해서는 정승철의 「일제강점기의 언어 정책-언문철자법을 중심으로」(『진단학보』, 진단학회, 2005.12.) 참조.

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작용한다. 문장이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생각에서, 한 나라의 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문법가와 함께 문학자의 손이 필요하다. 문법가는 표기와 구성과 토씨 등을 맡아서 해 왔지만 그것은 “늘 형식 방면으로 기울어진 혐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어학적인 한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형식이란 “말의 형해—곳 꺾덕이만을 가지고 혹은 분류도 하고 혹은 종합도 하는 것이요, 말에다 생명을 넣어 주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말은 ‘국민의 정신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내용을 등한시한 형식주의는 결국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없다. 이를테면, 정열모는 국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학을 통해 ‘훈(魂)’을 담아야 한다고 보았다.¹⁶⁾ 홍명희의 『임격정전(林巨正傳)』을 “조선에 일즉 짝이 없든 거편(巨篇)인 동시에 첩으로 조선 냄새나는 문학에 접촉한 듯 늦김이 있습니다”¹⁷⁾라고 한 것은 그런 사실과 관계된다.

그런 견해에 비추자면 조선총독부 간행의 교재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조선어독본은 형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무엇을 가르치고자 함인지 의심스러운, 이를테면 “두두몽술이에 이름모를 괴물”과도 같다.

말의 교육은 물론 말의 형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국민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현행하는 조선어독본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함인가를 의심한다. 형식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위주한 것도 아니다. 요컨대 두두몽술이에 이름모를 괴물이다. 이러한 교과서를 가지고는 조선어의 성적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은 선생님네의 죄뿐이 아니다. 「소가 가오」 「말이 달어나오」 하는 따위의 덤덤한 말숨시가 어찌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끌며 흥미 없는 교재에서 무슨 학습열이 생길 것이라. 이러한 말을 그네가 들으면 조선에는 문학이 없으니 어찌

16) 정열모, 「철자 개정에 대한 의견」, 〈조선일보〉, 1928.11.2. 인용의 띄어쓰기는 필자가 함.

17) 정열모, 「신문의 삼대 연재」, 『신생』, 1929.12, 19면.

하느냐? 하는 구실을 말한다. 하기는 그네에게는 만엽집이니 원씨몰어이니 하는 거룩한 문학이 있다. 그러하니까 소위 그네들의 현대 문학이란 것은 전통적 일본 냄새뿐이고 외국사람을 번역한 자취는 가지지 않았더라는 말이었다. 그래 그네말과 같이 지나간 조선에 문학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조선에 문학이 생기지 말란 법은 어대 있을 것인가. 일본의 누구누구의 작품이 문학으로 가치가 있어 그것을 교과서에 채용하는 것이라면 현대 조선의 누구누구의 작품도 같은 값이 있을 것이다. 만일 그네말처럼 고문학만을 가진 나라만이 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라사나 덕국같은 데는 국어교육이 성립되지 못할 것이다. 그야말로 역사에서 살면서 역사의 사실을 부인하는 몰상식한 억설이다. (떠어쓰기와 마침표—인용자)¹⁸⁾

‘조선어독본’이 「소가 가오」 「말이 달어나오」와 같은 덤덤한 말솜씨를 가르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은 문장이 내용(혹은 정신)이 없는 단순한 나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문장에 내용을 채워야 하고, 그것은 문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혹자는 조선에는 문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열모는 일본처럼 “누구누구의 작품이 문학으로 가치가 있어 그것을 교과서에 채용하는 것이라면 현대 조선의 누구누구의 작품도 같은 값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설령 과거 조선에 문학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조선에 문학이 생기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현대 조선의 작품’을 수록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그런 생각에서 정열모는 『현대조선문예독본』에 고전과 현대문학과 외국문학을 두루 수록한 것이다.

『현대조선문예독본』에 수록된 글은 정열모가 직접 쓴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당대 작가들이나 옛 문인들, 그리고 일본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글이다.¹⁹⁾ 「범례」에서 “평이한 문자로 된 취미 기사를 (...) 다방면에서 구

18) 정열모, 「이날을 기림하여—조선어독본 결담과 다행한 소식」, <조선일보>, 1927, 10.24.

하였노라.”고 한 것처럼, 수록된 글은 『시문독본』, 『조선문단』, 『신소년』, 『동광』 등의 잡지와 일본의 동화책이나 작품집에서 수집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수록 작품은 주요한, 김동명, 방정환, 김상암, 신영철, 이월사, 정태연, 권덕규, 고한승, 양봉래, 이광수, 길재, 원천석 등의 현대시(신체시)와 수필과 소설, 그리고 옛 문인들의 시조이다. 번안으로 오가와(小川未明), 소마(相馬御風), 시마사키(島崎藤村), 오키(岡榮一郎), 아쿠다가와(芥川龍之介), 히로쓰(広津和郎), 하큐슈(北原白秋), 요시에(吉江喬松), 오후루이(大類伸)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²⁰⁾ 여기서 출전을 밝히지 않은 「참마항」, 「컬럼버스」, 「정몽주」, 「박연」, 「서경덕」은 최남선의 『시문독본』에 수록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단원명	장르	저자	출전
1 입학	수필	정열모 찬	
2 편지	수필		
3 작은배	현대시	김상암	조선문단
4 제비	동화(우화)	오가와	
5 빗소리	현대시	주요한	아름다운 새벽
6 잡초	수필	소마	

19) 저자와 출전을 밝히지 않은 「참마항」, 「컬럼버스」, 「정몽주」, 「박연」, 「서경덕」 등은 최남선의 『시문독본』에 수록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번안 동화와 소설은 당시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원본을 번안해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입학」, 「편지」 등은 정열모가 직접 지은 것이다.

20) ‘오가와’는 小川未明로 「제비의 생활」이라는 동화를 남겼고, ‘소마’는 相馬御風로 『잡초와 같이』라는 수필집을 갖고 있다. ‘시마사키’島崎藤村으로 「아라비아의 바다」를 지었고, ‘아쿠다가와’는 芥川龍之介로 「蜘蛛の糸」을 지었다. ‘히로쓰’는 広津和郎으로, 「U君とエス」(U군과 에스)는 1925년 발행된 히로츠 카즈오의 『현대소설단편선집』에 수록되어 있다. ‘오키’는 岡榮一郎(오카 에이이치로)로 나츠메 소세키의 문하생이 되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권유로 희곡가가 되었다. ‘하큐슈’는 北原白秋(키타하라 하큐슈)로 1920년에 『참새의 생활』을 출간하였다. ‘요시에는 吉江喬松(요시에 타카마츠)로, 「물결에 피는 꽃」은 1924년의 『빛나는 바다』에 수록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오후루이’는 大類伸(오오루이 마모루)로, 『美術をたづねて 伊太利及びフランス』(博文館, 1927)년 발행된 『미술을 방문해서, 이탈리아의 선물』이라는 책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7 입지	수필		
8 참마항(김유신 일화)	위인전		『시문독본』의 「제이십이 참마항」
9 명상의 노래	현대시	김동명	동광
10 컬럼버스	위인전		『시문독본』의 「제이십 컬럼보」
11 난파선	소설	병정환	사랑의 선물
12 아자비아의 바다	수필	시마사키	
13 애국 소년	교육 서사	데·아미지스	
14 임검님과 욕의	동화		
15 공을 이리내	동화	우스타	
16 다람쥐의 바지런	동화		
17 신실한 고직이	동화		
18 너의 모	소설		
19 생존경쟁	설명문	오커	
20 거미줄	소설	아쿠다가와	
21 만월대의 쌀기	수필	신영철	
22 회고(시조)	시조	길재, 원천석	
23 정몽주	교육 서사		『시문독본』의 「정몽란」
24 예던길(시조)	시조	이황, 박팽년	
25 박연	수필(기행문)	이월사	『시문독본』의 「박연」
26 물방아(신체시)	신체시	정태연	조선문단
27 에스	소설	히로쓰	
28 펜긴鳥	설명문	소진관	
29 수명의 장단	설명문	오카	
30 서경덕	위인전		『시문독본』의 「제15 서경덕」
31 아미산의 전설	소설		
32 방타 이야기	동화	권덕규	
33 참새의 생활	동화	하큐슈(北原白秋)	
34 새해에	현대시	정열모	신소년
35 해와 달	희곡	고한승	
36 만물초(草)	수필(기행문)	양봉래	
37 물나라의 배판	소설	이광수	
38 물결에 피는 꽃	수필(기행문)	요시에	
39 수중대처	설명	오후루이	

『문예독본』(이운재)이 이광수, 이태준, 정인보, 이병기, 현진건, 홍명희, 염상섭, 김동인, 최학송 등 당대 유명 문인들을 망라한²¹⁾ 것에 비하면, 『현대조선문예독본』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또 일본 작가들이 1/3 정도나 수록되어 외국 작품을 한 편도 수록하지 않은 『문예독본』과 대비된다. 문예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 문단에 대한 이해가 짧았기 때문에 이해되지만, 한편으로 정열모가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 문예가 아니라 한글 문장의 정리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도대로 『현대조선문예독본』에는 중학생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다양한 내용의 글들이 제시된다. 첫과 「입학」은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은 학생의 감회와 함께 입학식에서 “장래 사회의 중견이 되오 국가를 흥융케 할 책임을 질머진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훈시를 듣고 결의를 다지는 내용이다. 「편지」에서는 입학 후 모교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맘을 전하고 친구인 김대성 군의 안부를 묻는 내용과, 선생님의 입학 치하와 함께 장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훌륭한 조선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가 언급된다. 「입지(立志)」에서는 사람이란 세상에 나서 반드시 일대 사업을 건성해야 인문의 진보에 공헌함이 있어야 할 것이니, 서둘러 뜻을 세우라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훈시를 근간으로 다양한 글들이 제시되는데, 특히 김유신이나 서경덕, 정몽주 등 우리의 옛 인물들이 다수 소개된다. 이는 조선총독부 간행의 『조선어독본』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책을 편찬한 의도를 짐작케 해준다. 물론 『조선어독본』에도 조선의 역사와 인물이 수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조선어’ 교재라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록된, 이를테면 조선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이라든가 정체성이 배제된 기능적인 안배의 수준이었다. 『현대조선문예독본』에는 그와는 달

21) 『문예독본』에 수록된 작품은 이광수가 가장 많은 5편이고, 이운상이 4편, 이태준, 정인보, 이병기, 현진건, 주요한, 변영로가 각 2편, 방정환, 한정동, 박종화, 김동환, 양주동, 김진구, 김억, 변영로, 홍명희, 염상섭, 현상윤, 나빈, 김동인, 민태원, 주요섭, 최학송, 박팔양, 문일평, 윤교중, 권덕규, 최상덕, 유광렬, 일명(逸名)이 각 한편씩이다.

리 조선의 역사와 정신을 배경으로 인물들의 일화가 소개된다. 8과 「참마항」에서는 신라의 명장이자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의 젊은 시절의 일화가 소개되고, 23과 「정몽주」에서는 “몸과 목숨을 바쳐 고려조의 마조막 비치(빛)된 정몽주의 충절이 소개되며, 30과 「서경덕」은 서경덕의 어린 시절의 일화가 제시된다. 22과 「회고」와 23과 「정몽주」에서는 옛 인물에 대한 그리움과 임금을 향한 충절의 시조가 제시된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도라드니 / 산천은 의구커늘 인걸은 어대간고 /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길재), “홍망이 우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스니 / 석양에 지나는 손이 눈물겨워 하노라”(원천석), 그리고 정몽주의 “이몸이 죽어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 백골이 진토되어 너시라도 잊고없고 / 남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잇스랴”와 이황과 박팽년의 임에 대한 충절의 시조와 함께 “천하사를 양견(兩肩)에 담착(擔着)”하고 산 정몽주가 찬양된다. 뒤이어 이황의 “청산은 잊지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잊지하여 주야에 굿지아닛는고, 우리도 굿지지 말아 만고상청하리라.”라는 시조가 제시된다.

사람이 世上에 나매 만드시 一大 事業을 建成하야 人文의 進歩에 貢獻함이 잇슬지니라.

잇서야 잇는 標가 업고 사려야 사는 보라미 업스면 사람되어 난 意義와 價値가 어대 잇스리오. 無限히 發展할 수 잇는 素質을 가진 채 醉生하다가 夢死함은 곳 高貴한 人格을 自抛하고 卑劣한 物性으로 同歸함이니 人生의 恥辱이 莫此爲大이로다.

世界가 다 나를 爲하야 베푼 舞臺이오 萬物이 다 나를 爲하야 잇는 設備이니 진실로 有志하고 有爲하기만 하면 내 才能을 發揮하고 功業을 建成하기에 아모 不足과 不便이 업슬지라, 이 當用物을 取用하고 이 分內事를 行爲하면 人生의 價値도 온전하고 男兒의 面目도 나타낼지니라.²²⁾

22) 정열모 편, 「칠 입지」, 『현대조선문예독본』, 1929. 20면.

진실로 뜻을 두고 행동하면 내 재능을 발휘하고 공업(功業)을 세워 이루기에 아무 부족함과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열모는 옛 성현과 왕조에 대한 그리움과 충절을 환기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뜻을 세우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 의도는 만월대를 둘러보고 감회를 서술한 기행 「만월대의 쌀기」에서 한층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화자는 만월대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개성에 잇는 옛날 고려나라의 대궐터”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개성의 지리와 고려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월대는 ‘고려의 첫남김 왕건 태조가 이곳에 굉장하고 찬란한 대궐을 지은 후 공양왕까지 무릇 삼십사대, 사백칠십년동안 영화를 극한 자리’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잡초로 우거진 지금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변에 널려 있는 쌀기를 따 먹는다는 동화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나는 멀리멀리 이곳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들의 사시던 터에서 쌀기 짠 것을 한입은 영광으로 안다. 우리 할아버지들의 영혼이 지금까지 이곳에 계시다면 이 어린 손자가 멀리멀리 남쪽나라에서 와서 당신들 사시던 터에 아장아장 거러다니며 당신네들의 생전에 당신네들 몸에 빙빙 돌던 산 피땀 가튼 쌀기를 싸고 먹고 하는 나를 보시고, 사랑스러운 맘에 당신네들 품속에 담속(담뱃) 안어주고도 시뻘슬는지 누가 알겠느냐?” 곧, 어린 소년이 되어 조상들의 영혼이 깃든 만월대에서 쌀기를 따먹고 어리냥을 부러보고 싶다는 심정,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을 풀고 싶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심리는 “산천은 의구커늘 인결은 어대간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스랴”, “남은 다 자는 밤에 내 어이 홀로 깨어, 옥장 기픈곳에 잠든 님을 생각하는고”라는 시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현대조선문에독본』에서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외국 동화와 위인에 대한 글이다. 「컬럼버스」는 컬럼버스가 여러 고난 끝에 “초지(初志)를 고치지 아니하고 용기가 꺾기지 아니하여 죽도록 줄곳 활동”하여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내용이다. 「난파선」은 영국 리버풀에서 200명

을 태운 배가 폭풍으로 난파하자 선장은 “나는 내 직무에 죽을 터이다”라고 하면서 선원들을 구명정으로 보내고 자신은 배에 남고, 주인공인 12살 짜리 이태리 소년은 자신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배에 남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많은 가족이 기다리는 동갑의 소녀를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고 자신은 침몰하는 배에 남는다는 이야기이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희생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애국소년」은 「난파선」과 내용상 연결되는 작품으로 11살 된 이탈리아 소년이 요술꾼에게 팔려 프랑스와 스페인 등지를 순회 흥행하다가 가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자국 영사관의 도움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의 동정으로 많은 돈을 얻지만, 승객들이 이탈리아를 홍보는 소리를 듣고는 그 돈을 내친다는 이야기로, “암만 곤궁해 싸져도 우리나라 홍보는 놈들의 돈은 엽전 썰넛도 맞기 실타”는 내용이다.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몇 푼의 돈과 바꾸지 않겠다는 소년의 기개를 보여준다. 이는 방정환이 『사랑의 선물』 서두에서 “학대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우리처럼, 쫓, 자라는, 불상한 어린령들을 위하여, 그윽히, 동정하고 아끼는, 사랑의 첫선물로, 나는, 이책을 씌었습니다.”²³⁾라고 쓴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신실한 고직이」는 러시아 농부의 일화를 통해서 “만흔 돈을 가지고도 유용하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너의 모」는 전쟁 중에 죽인 적의 시체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하고 그 어머니에게 사죄의 편지를 쓴다는 내용이다. 곧,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은 전쟁이라는 잔인무도한 악마가 시킨 것이라는 것. 이에 그 편지를 받은 적군의 어머니가 편지를 읽고 자식이 다시 살아나 편지를 보낸 듯하다는 소회를 말한 뒤 “죽이거나 죽는 것이 각각 국가를 위함시오 개인끼리는 아모 원염도 업는 것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로 참된 사랑을 주고 맞고 하는 까달깁니다.”라고 말하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우리집으로

23) 방정환 편, 『사랑의 선물』(11판), 박문서관, 1922년.

당신을 초대해서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는 내용이다. 「방타이야기」는 「홍부전」과 「흑부리 노인」을 결합한 내용이다. 아우는 엄청난 부자이지만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인물이고, 형은 착하고 욕심이 없는 인물이다. 형은 파랑새를 따라 산속으로 갔다가 도깨비를 만나서 요술방망이를 얻는다. 형은 그 소문을 듣고 동생을 따라 하지만 도깨비에게 잡히고 방망이를 훔쳐 간 것으로 오해를 받아 코끼리처럼 코가 튀어나온다는 내용이다. 「아미산의 전설」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아미산의 전설이다. 역사(力士)인 남매가 목숨을 걸고 힘자랑을 하다가 목을 베는 내기를 시작하자, 어머니는 “두 자식을 나라니(나란히) 키우지 못할진대 차라리 딸자식을 주겨버리지”는 결심에서 누이를 방해하고, 마침내 아들이 이겨서 누이를 죽게 한다. 딸자식을 잃은 괴로움에서 어머니가 누이를 방해했다는 것을 말하자 아들은 “어머니가 저를 속였습니다. 올치 아니한 생은 정당한 死만 못합니다”라고 말한 뒤 칼을 던지고 가슴을 쳐서 죽고, 이에 어머니는 미쳐서 주변을 배회한다는 이야기이다. 비록 육친의 관계라 하더라도 불의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것, 그렇지만 감히 모친을 죽일 수는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이야기이다.

『현대조선문예독본』은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어독본』에 서는 볼 수 없는 인물과 정신을 다양한 형태로 수록하였다. 「문예가는 말에다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조선과 외국의 문예문을 수록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국에 대한 충절과 사랑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이다.

4. 한글운동과 문예 독본

『현대조선문예독본』과 『문예독본』은 매우 유사한 형식을 갖고 있다. 머리말 형태의 「예언」을 앞세우고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수록한 것

이나, 작품의 출전을 밝히고 작가에 대한 소략한 설명을 첨가한 것은 두 책이 모두 동일하다. 게다가 책을 편찬한 의도도 거의 같다. 두 사람은 모두 책명에 ‘문예’를 앞세웠고, 다양한 형식의 문예문을 통해서 문장을 정리·보급하고자 하였다. 책에 수록된 글들은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철자를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등의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정열모와 이윤재는 모두 한글학자이자 조선어 교사로 일하면서 한글 운동에 적극 관여하였고, 문장은 궁극적으로 내용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런 사실에서 『현대조선문예독본』은 『문예독본』의 저본과도 같고,²⁴⁾ 바로 그런 점에서 『현대조선문예독본』은 한글 문장을 문학 문장을 빌려 완성하는, 이윤재와 이태준으로 이어지는 한글 문체의 정립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정열모는 문장을 형식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문체 삼았다는 점에서 한층 진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문장에 ‘혼’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열모는 문예물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문장의 내용을 채우고자 하였다. 「참마항」에서는 신라의 명장이자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의 일화를 소개하였고, 「정몽주」에서는 몸과 목숨을 바쳐 고려조의 마지막 빛이 된 정몽주의 충절을 소개하였으며, 「회고」에서는 옛 인물에 대한 그리움과 임금을 향한 충절의 시조를 제시하였다. 또 외국의 소설과 동화를 통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헌신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해서 정열모는 문장을 형식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함께 정리·완성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곧 한글 문장의 영역을 문학적 글쓰기로 확장하는 중요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현대조선문예독본』이 계기가 되어 ‘조선어과의 보급과 작문의 문법’²⁵⁾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문예독본』이 편찬되었고, 당대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선별·수록한 『조선문학독본』(1939)이 간행되었으며, 문장의 작법과 퇴고

24) 『문예독본』에 대해서는 강진호의 「한글 문체의 정립과 조선의 정신」 『문예독본』(1932)을 중심으로(『한국문학연구』,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6) 참조.

25) 이윤재, 「법례」, 『문예독본』, 진광당, 1932, 1면.

의 이론, 다양한 문체 등을 문학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한 『문장강화』(1940)가 출간되었다. 『문예독본』에서 ‘한글 철자일람표’를 부록으로 첨부하고 한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순수 한글문장을 구사한 것이나, 『문장강화』에서 다양한 한글 문체를 소개하고 퇴고의 요령까지 제시한 것은 한글 문장이 공고하게 정립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물론 정열모의 작업에는 한편으로 조선총독부 간행의 교재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민족주의적 의지가 작용한다. 총독부 간행의 ‘독본’은 문장을 단순하게 나열한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문예문을 통해서 대체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는 일본어가 국어가 되고 조선어가 일개 지역어로 전락한 현실에서, 조선의 정신을 지키는 일과도 맞먹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현대조선문예독본』은 단순한 독본이 아닌, 우리말을 연구하고 보급해서 조선의 정신을 지키고자 한 민족운동의 산물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언문철자법 개정과 교육행정의 신기원」, 《매일신보》, 1930, 2. 17.
- 강하영, 『이십세기 청년독본』, 대화서관, 1922.
- 방정환, 『사랑의 선물』, 박문서관, 1922년판.
- 이광수, 『문장독본』, 1937, 홍지출판사.
- 이운재편, 『문예독본』(상권)(수정판), 경성 진광당, 1932.
- 이운재편, 『문예독본』(하권)(수정판), 한성도서주식회사, 1933.
- 정열모, 「우리글을 옳게 적자는 주장을 가지고」, 〈동아일보〉, 1927, 7.6.
- 정열모, 「이날을 기리어—조선어독본 결담과 다행한 소식」, 〈조선일보〉, 1927, 10.24.
- 정열모, 「조선어문법론」, 《한글》(동인지) 1-2, 1927, 12면.
- 정열모, 「조선어철자법에 대한 사계학자의 의견은 어찌한가(一)」, 〈조선일보〉, 1928, 11.2.
- 정열모, 「신문의 삼대 연재」, 『신생』, 1929.12, 19면.
- 정열모, 『한글문예독본 답권』, 신한인쇄주식회사, 1946년, 6.5.
- 정열모, 『현대조선문예독본』, 수방각, 1929, 4.2.
- 조선총독부, 『보통학교 조선어독본』권5,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34.
- 최남선편, 『시문독본』, 신문관, 1920.

2. 논문 및 저서

- 강진호, 「한글 문체의 정립과 조선의 정신-『문예독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5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6.
- 김지영, 「최남선의 시문독본 연구: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23), 한국현대문학회, 2007.12.
- 구자황, 「근대 독본의 성격과 위상(3)」,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2010.5.
- 문혜윤, 「문예독본류와 한글 문체의 형성」, 『어문논집』(54), 민족어문학회, 2006.
- 정승철, 「일제강점기의 언어 정책-언문철자법」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진단학회, 2005.12.
-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2005.
- 최규수, 「정열모 문법론의 특징」, 『한글』(281), 한글학회, 2008 가을.
- 최기영, 「백수 정열모의 생애와 어문민족주의」, 『한국근현대사연구』(25), 한국근현대

사연구회, 2003.

하성환, 「친일 교육자 최규동과 '조선의 페스탈로치' 이만규」, 『교육비평』(38), 2016.1.

<Abstract>

Literary reader and organize
and dissemination of Korean sentences

– Jeong Yeol-mo's 『Modern Chosun Literary Reader』(1929)

Kang, Jinh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Modern Chosun Literary Reader』(『現代朝鮮文藝讀本』) pu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odern Chosun Literary Reader』 was first published in Subanggak on April 2, 1929, and came out to the world, but little has been known so far. The reader may have been interested in the field of literature because it claimed to support a ‘literature’ reading, but it was only briefly mentioned in the meeting referring to Jeong Yeol-mo's Korean linguistic achievements. The place where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compilation can be inferred is the 「Introductory Remarks」 corresponding to the preface in 『Modern Chosun Literary Reader』. In the 「Introductory Remarks」 1, it says, “we took a lot of hobby articles in plain characters, but searched for the materials as much as possible in various ways.” in order “to train the reading ability of high-level school students through self-study through self-learning”. Thus, it can be seen that the book was published with the intention of enlightening high-level students. For that purpose, the book contains writings of various genres and authors. Comparing the writings contained in the 『Modern Chosun Literary Reader』 with the original text, first of all, it can be seen that the confusing spelling had been corrected. Literary

expressions such as descriptions and metaphors of the work were boldly omitted, and concise and logical sentences were made. In addition, punctuation points such as period (.) and comma (,), question mark (?), and line (-) were used to make a logical sentence. However, since it was not based on the Korean spelling unification plan but on the personally organized spelling unification plan, it can be seen that the rule of ‘Do not use the tense sounds of ㅅ(siot, a Korean letter)’ in the Korean spelling unification plan was not applied and used as it is. Meanwhile, Jeong Yeol-mo tried to contain the spirit through literary works from the idea that in order to develop the Korean language, ‘soul’ should be contained in sentences. He introduced characters who supported our history and spirit, including Kim Yu-shin, Jeong Mong-ju, Seo Gyeong-deok, Gil-jae, Lee Hwang, and Park Paeng-nyeon, and emphasized the spirit of courage and devotion to our country through foreign fairy tales and great men. To sum up these facts, it can be seen that 『Modern Chosun Literary Reader』 is a practical product of the movement for organizing and disseminating Korean (Hangeul).

Key words: Jeong Yeol-mo, 『Modern Chosun Literary Reader』, Sentence form and content, literary reading, Korean reading, Hangeul Movement

투 고 일: 2022년 5월 13일

심 사 일: 2022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2022년 6월 20일